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해남방조제 일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정경훈)는 해남군 황산면 해남방조제 일원에서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해남진도축협, 해남군수협과 함께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안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직원과 참여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해남방조제 주변을 돌며 해안으로 유입되거나 방치된 페어구와 페스티로품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기관* 참여자들은 방조제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정비하며 쾌적한 해안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ESG 경영의 실천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 의미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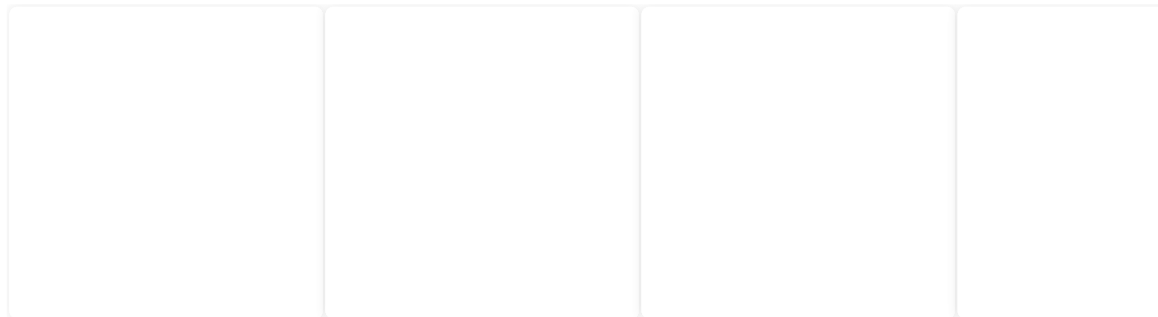


데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은 “지역 내 유관기관이 합심해 소중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ESG 경영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농어촌 환경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ESG 실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용품 필수템
Temu

① ⋮

